

“포교에 수익금 환원”

서울농대 대불련동문들 입시학원 개설...불서보급 지원

서울농대 불교학생회(이하 농불회) 출신 동문들이 수익사업을 통한 불서보급에 나섰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농불회 동문회(회장 이종기) 소속 김재은(81학번)씨와 오규식(83학번)씨. 이들은 동문들의 적극후원으로 지난 11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입시 전문 ‘용문학원’을 개설했다.

용문학원이 여는 입시학원과 다른 것은 개인 통기가 섰다르다는 것. 어려웠던 불교학 생의 시절을 잊지 못한 농불회

출신 동문들이 더 나은 포교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 자고 발원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는 남들이 주목 하고 있는 음식에서 곳곳하게 포교활동을 펼치는 이들이 많 습니다. 불자들이 힘을 모아 수익사업을 펼쳐 이익금으로 이 들을 돕는다면 더할나위 없 겠지요. 이것을 실현하기 위 해 동문들이 뜻을 모아 학원 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졸업후 청년불교운동을 펼치고 있는 김재은씨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초기경전을 한글화하는 선배 를 돕기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수익사업을 생각하게 됐 다”고 말했다.

다섯 강남에서 7년째 유명 강사로 활동하던 후배 오규식 씨를 설득하게 되었고 동문회 의 재정지원으로 1백80평규모 의 학원이 마련됐다.

서울대 농대에 불교학생회 가 창립된 것은 70년대 초반. 대불련 역사로는 짧은 기간이 지만 법우들간의 우의는 가족

이상이다. 선배배간의 존경과 우애가 졸업후에도 끊이지 않 고있는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1백여명 의 동문들이 해마다 3~4차례 는 사찰에서 수련회를 펼치고 오 고 있다.

“용문학원은 단지 사립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 이 강남에 비해 교육적으로 낙 후된 곳이지만 최고의 교육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 저희의 또 다른 바람입니다.”

강남 최고강사라는 자리를 미련없이 떨쳐버리고 용문학 원으로 달려온 오규식씨. 그는 “낮이든 밤 강의실을 지역주민 을 위한 교양강좌나 회의실로 무료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통신통과교육을 전개해 지역발 전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심과 젊음의 패기로 개원된 용문학원은 착박한 불교 재정에 ‘수익금의 재투자’라 는 새 장을 열어나가고 있다.



◇서울농대 대불련 동문 김재은씨(왼쪽)와 오규식씨(오른쪽 두번째)가 입시전문학원을 개설 했다. 이들은 수익금으로 불교포교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준엽 기자



◇조계종 최초로 열린 특별계단 수계산림에서 1백14명의 스님들이 구족계를 수지했다. <범어사=박병근 기자>

조계종 특별계단 1백14명 구족계

조계종 단일계단 수계산림 이전에 사미(니)계를 받은 만 40세이상 스님 중 지금까지 비 구(니)계를 받지 못한 스님을 대상으로 한 특별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범어사 금강계단 에서 불행대 1백14명(비구 90 명, 비구니 24명)의 스님이 구 족계를 수지했다.

일차 전계대화상을 비롯 승 천(승공사 장관), 장관(범어사 주지)스님 등이 참석한 이번 수 계산림은 첫날 수계자 심사 를 거쳐 둘째날에는 수계 고불 식, 포살(108참회) 그리고 마 지막날은 회향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수계산림의 최고령자는 강릉 삼덕사의 박도홍스님(80 세)이다. <관린인터뷰 4번>

승려교육기록부 인사반영

조계종 교무국장회의 기본교육 입방의무화 결의

내년부터는 종단지정 기본교육기관이 비구·비구니 각각 4 개로 정비 개편되며, 전 승려의 교육기록부가 의무화되어 주요 인사자료로 쓰여진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스님)은 지난 1~2일 설악산 신 흥사에서 열린 전국 본사 교무 국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과 함께 △중양연수원 부지확정 및 설계도 마련 △3~5개의 학 립 설치 △어산학교 개설 △진 문강사 양성 △법계교시 실시 △연수강화 △국내외 장학생 선발 지원 등을 내년도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밝혔다.

이 내용에 따르면 승려 기본 교육기관은 삼보사찰의 승가대학을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확 립 개편하며 군소 지방승가대 는 학원으로 개편, 학원은 전국 유수 사찰중 학풍의 맥을 이을 수 있는 사찰을 지정 육성시킨 다는 방침이다.

현재 절대 부족한 강사양성 을 위해 직지사 등에 특수학림 을 설치 30명 정도(비구 20, 비 구니 10)를 집중 지도해 전문 강사를 양성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본사 교무국장 18 명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는 교 구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

획 심의 결정하는 교구 교육원 원회 구성과 사미(니)계 수지 후 기본교육기관 입방 의무화 를 결의했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소장 덕은)도 △국제심포지엄 (가을 예정, 주제 ‘세계 공동체 의의경과 수행체계 현황’) △한국불교 사상사 정립 △교 육관련 세미나 △교육연구 회 오 제작 △교과연구 활성화 등 을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했다.

구로복지관 운영말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원주스님)은 지난 1일 서울시 로부터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체제로 선정됐다.

구로공단 지역의 중심에 자리 하고 있는 구로종합사회복지 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대 규모 운영을 설악산 신흥사 가 맡는다.

“전자계산원·의료사업등 활성화 추진” 동국학원이사장 녹원스님 재임 기자회견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은 지난 1일 이사장실 에서 재임 기자회견을 갖고 동 국학원 발전기본계획안을 발표 했다.

이날 녹원스님은 △전자계산 원 활성화 △초·중·고교 활 성화 △제3캠퍼스 건립추진 △ 경주부원원 증축, 포항병원 이전 등 의료사업활성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동국학원 발전 기 획안을 밝혔다.

발전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수익사업으로 경주부원원 일대

부지 1만1천평에 병당, 선실을 갖춘 의료양양시설을 콘도형으로 건립 분양하며 오대산 지역 4백5십만평에 연수원 건립, 생 수회사(가칭 오대산 동국생수) 등을 유치해 교육재정을 확보 한다는 것.

이밖에도 녹원스님은 “2천6 년까지 일산 제3캠퍼스 건립 완료, 정부의 교육개혁에 따른 산하 초·중·고등학교 활성화, 경주 불교유치원 건립 등 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 다.

7일 동안거 입제 전국사찰 3개월간 수행

불기 2539년 동안거 결제가 전국 사찰에서 지난 7일 일제히 입제됐다.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을 비롯 재방선원의 조실스님들은 안거에 앞서 법어를 내렸다.

이번 동안거는 96년 3월4일 해제한다.

구독신청: 737-0693

“선학원 탈종단 멈추고 정관 따르라”

월주 총무원장 성명...18일 분원장 초청간담회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4일 ‘선학원 분원장 및 선학원 산하 사업에 거주 하는 조계종도에게 고향’이란 성명서를 통해 “선학원은 조 계종의 정지를 분당한다는 뜻 을 덧붙여 그 정관에 천명하고 이사의 3분의 1은 조계종 중앙총회에서 추천하는 조계

종 종진원로로 구성할 것”을 재촉했다.

월주스님은 이어 “선학원은 법인이라는 제도적 특수성을 빙자해 탈종단화를 기도하지 말 것”이라 경고하며 선학원이 종단의 조지를 수용한다면 선 학원의 자율성과 제도적 특성 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학원이 이러한 종 단의 요청을 끝내 수용하지 않 는다면 종단으로서 더 이상 의 상보정제의 유실을 막고 종 현증법을 수호하기 위해 탈종 단을 기도하는 주도자들을 의법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관린기자 2번>

한편 조계종산하 법안대책위 원회(위원장 정우)가 주관하는 선학원 분원장 초청간담회가 오는 18일 오후3시 열린다.

11일부터 두차례 실시 조계종 주지 보충연수

조계종 교육원은 분발사주지 연수회 불참자 보충 연수교육 을 1차(12월 11~13일), 2차(12 월 14~16일)로 나뉘어 화성 신 흥사에서 실시한다. 1차는 서 울 경기 강원 충청권, 2차는 호 남·영남권의 불참자 주지스님 들이 그 대상이다.

삼풍참사 희생자등 합동 천도제

삼사회, 20일 佛放법당

불교 원불교 천주교 여성 성 직자 친목모임인 삼사회가 ‘재 난 사고 피해 및 5·18 희생영 령 합동천도제’를 오는 20일 불교방송국 3층 법당사 봉행한 다.

이번 천도제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대구 가스폭발 등 각종 사고 희생 영 령들을 천도하고자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 장 월주스님, 천주교 김정은 신 부, 원불교 서울교구청 장영철 교무 등이 참석한다.

덕혜스님)은 지난달 24일 교직 원 학생을 비롯 사부대중 1천 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법당 준공식 및 천불봉안법회를 개 최했다.

경기도 안양 보광사 신도회 를 중심으로 지난해 10월 불사 를 시작 1년여만에 준공된 대 법당은 1백20평의 규모에 석가 모니부처님을 본존불로 뒤견에 는 20cm 높이의 천불이 자리하 고 있다.

삼풍참사 희생자등 합동 천도제

삼사회, 20일 佛放법당

불교 원불교 천주교 여성 성 직자 친목모임인 삼사회가 ‘재 난 사고 피해 및 5·18 희생영 령 합동천도제’를 오는 20일 불교방송국 3층 법당사 봉행한 다.

이번 천도제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대구 가스폭발 등 각종 사고 희생 영 령들을 천도하고자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 장 월주스님, 천주교 김정은 신 부, 원불교 서울교구청 장영철 교무 등이 참석한다.

직지사 진입로 폐차장 허가

신도·주민 “유적·환경 훼손 우려” 취소 요구

무분별한 공간조성등으로 불 교문화유적 훼손 우려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조계종 제8교구본사 김천 직 지사(주지 녹원스님)는 사찰 진입로 입구에 폐차장 허가를 내준데 대해 진정서를 내는등 감침사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 고 나섰다.

직지사측은 지난 1일 김천시 장을 방문 폐차장 부지 이전과 일반공업지역을 자연환경보존 지구로 변경시켜 줄 것을 요구 하는 2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했다.

사찰측과 신도들은 당국이 직지사 진입로 입구인 대형면

사찰도 청소년 포교 ‘사각지대’

조사대상 2315곳중 334곳만 학생회 운영

조계종 포교원 ‘불교청소년 의 해’ 기획위원회 조직분과 (분과장 우인보)가 전국 15개 시도 중·고등학교 불교학생회 (청소년 신명단체) 실태조사에 이어 지난 2일 2천3백15개 사 찰의 불교학생회 운영현황을 최종집계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2백 53개 사찰 중 79개 사찰, 부산 49/106, 대구 16/92, 인천 7/173, 광주 11/34, 대전 4/10, 경기도 19/271, 강원도 12/134, 충북 13/82, 충남 17/185, 전북 11/160, 전남 10/154, 경북 42/410, 경남 36/187, 제주도 6 개 중 8개 사찰이 불교학생회 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보문학원 법당준공 천불봉안법회 봉행

학교법인 보문학원(이사장 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포교원은 이번 학교·사찰 불교학생회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표면화됨에 따라 청소년포교의 장기적이고 효율적 인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재) 한국청소년포교위원회 (가칭)’를 설립할 예정이다.



◇한중일 불교 대표들은 예비회의를 갖고 내년 서울대회의 주제와 일정을 확정했다. <고영배 기자>

‘선우즐거운봉사단’ 27일 창단 청년불자로 구성...21일 주몽재활원 첫활동

불교자원봉사의 새 장을 펼쳐갈 교계 최초 청년불자들이 구성된 ‘선우즐거운봉사단(단장 이성훈)’이 오는 27일 창단 된다.

선우즐거운봉사단은 지난 여 름 우리는 선우에서 주최한 경 주문화포럼에 함께 한 서울시 내 사찰의 어린이·청소년 법 회 지도자들이 의기투합, 우리 는 선우의 지원으로 창단에 이 르게 된 것이다.

현재 법안정사, 해원정사, 금 강정사 등의 지도교사들과 우리 는 선우 학생회 회원등 5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창단과 함께 선우즐거운봉사 단은 청년불자다운 새로운 자 원봉사프로그램 개발의 하나로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캠프와 군포소년원 불교반 50여명과 합 계 하는 ‘군포소년원 겨울불교 학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선우즐거운봉사단은 창 단에 앞서 오는 21일 주몽재활 원서 첫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선우즐거운봉사단은 앞으로

경주 남산 ‘쓰레기 몸살’

불법분묘도 2만여기...성지보호대책 절실

신라 불교문화의 보고 경주 남산(사적 311호)이 불법 분묘 와 쓰레기로 인한 훼손이 심각 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 다.

지난 1일 경주발전정책연구 소는 7백50여만평의 남산에 3 명의 감시원으로는 행락객이 버리는 쓰레기를 제대로 감시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감시원 증원과 안산단체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고 지적했다.

특히 야간을 이용한 불법 분 묘조성도 매년 급증, 현재 2만 여기에 달해 감시원 증원과 안 식단체 도입, 외에도 입장료를

내년 한중일 불교대회 서울서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정 확정 세계난민구제 협력기구 등 제안

제2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회의가 내년 9월 9일부터 12일 까지 3박4일간 서울에서 ‘21세 기를 주도할 한중일 불교의 역 할’을 주제로 열린다.

한중일 3국 불교대표(수석대 표 방지하, 신재부, 고바야시 류쇼)들은 지난 2, 3일 서울 위 컷호텔에서 예비회의를 갖고 대 회 일정과 주제를 확정했다.

또 한국측이 제출한 제2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선언 문 초안은 이후 각각 연락위원 회간에 상호연락을 통해 확정 키로 했다.

선언문 초안에는 ‘부처님의 이타사상과 자비정신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다가 올 미래의 올바른 이념과 사상 을 제시할 기준이 될 것’이라고 천명하고 “한중일 3국은 인 류의 화평과 번영을 창출하기 위해 보살행을 실천함으로써 21세기를 주도할 불교적 역 할 을 모색하자”고 밝혔다.

또 세부실천 사항으로 △문 화·학술교류 △인력교류 △정교교류 △상호간의 참관 대 회 △세계불교도들과의 교 류 △한경과과에 대한 3국의 불교적 모색 △세계난민구제 사업을 위한 협력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전문직종 포교 활성화” 부산불교신도회 세미나

의료, 법조인 등 전문직업인 들을 중심으로 한 ‘직장포교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지난 달 30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대학(원장)씨의 총평으로 진행 됐다.

사무처장에 이상현씨 조계종신도회준비위

조계종 중앙신도회 결성 준 비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지 난 1일 음식적 초창에서 확대 회의를 갖고 사무처장에 이상 현교수(동국대)를 선임했다. 송원주총무원장을 비롯 신명단 চে장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 의에서 참석자들은 부위원장 단, 상임위원, 준비위원을 추가 키로 결의했다.

한편 신도회 준비위는 오는 14일 조계사내 문화교육관에서 준비위원 회의를 갖고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인준절차를 마무리 한다.

사단법인 추진등 내년사업 확정

불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불교사회복지협의회(회 장 각현스님)는 20여 회원단체 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삼 정호텔서 총회를 열고 △회원 단체 및 시설행관 파와 △회원

불자들에게 불교관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게될 자비의 전화 불교114가 (02)7300-108 번의 전용 서비스화선을 개 선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 작했다.

자비의 전화는 지난 2일 녹수정 산서 개동 5주년 기념 일일차 집과 함께 불교 114시연회를 갖고 전국 1만5천여개 사찰의 기본 정보와 불교복지관, 복 지단체, 불교단체에 대한 서

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자료는 최근에 확인 작업을 거쳐 입력한 최신 자 료들로써 자비의 전화는 내 년 상반기까지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와 더 불 어 자 비 의 전 화 는 장 기적으 로 각 사 찰·단 체와 의 정보교류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보다 신속하고 원할 한 불교114 운영에 단전을 다 할 계획이다.